지방행정공무원의 사회자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rruption to the Social Capital of Local Officials

전 오 진 (호서대학교 시간강사- 주저자)
장 철 인 (백석대학교 시간강사- 교신저자)

Abstract

Oh-Jin Chun / Chul-In Chang

Social capital do not always produce effect as some researchers have argued. Sometimes certain types of social capital work to the primal cause of distrust both at the individual and social levels.

Here I focus on just one of these social bads: bureaucratic corruption, by which I shall simply mean those action that deviate from public norms of decision-making for the sake of private gain. In corruption research, it is often argued that in 'high-trust' societies. i.e. societies with a high level of trust in anonymous others and institution, there exist lower corruption rates than in 'low-trust societies. As demonstrated in neither situation nor person specific; the higher the (generalized) trust in anonymous others and institutions, the lower the corruptionS

주제어 : 사회자본, 부패용인도, 신뢰, 지방공무원, 부패

Key Words : social capital, corruption toleration degree, trust, local official corruption

Ⅰ. 서 론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이전의 정부도 반부패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것 같다. 물론 뇌물수수나 공금횡령과 같이 외견상으로 금액의 규모는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혈연·지연·학연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공적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같이 묵시적인 부패행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 뉴스가 연일 끝임 없이 쏟아져 나오고 국민은 공직사회를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내몰고 불신과 냉소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불신은 공직자의 복지부동, 형식주의와 보신주의로 이어지는 불신의 악순환에 빠져 들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 비효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와 한국공직사회에 만연된 부패 현상을 이해하는 단초는 연고주의 문화에서 찾고 있다. 연고주의는 학연, 혈연, 지연으로 형성된 전근대적인 특별한 관계이면서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구조적 맥락이 되었다. 연고간의 신뢰가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그 범위 안에서 머물러 더 큰 사회로 이어지는 일반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연고주의 태도가 연고중심 결사체 참여로 이어지고 내집단 편애 현상이 고착화되어 사회전반의 신뢰를 침식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해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속적 집단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거기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귀속집단 구성원간의 내집단 편애와 그들만 특정한 신뢰가 사회전체로 확대되지 못하여 저신뢰 사회로 남겨지게 된다. 특히 귀속집단은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과 배제성 그리고 진입을 막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골몰하는 동안 사회전체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사회자본(bads social capital)이 생성되기도 한다. 연고주의가 부패행위의 근원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연고주의와 부패간의 경험적 연구는 의외로 빈곤한 상태이다. 이는 연고주의에 대한 규범적인 정책 처방에 버금가는 연고주의 척도의 개발이 빈약하기도 하며, 신뢰 개념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전통이 극히 일천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연고주의적 태도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자본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명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의 개념은 '신뢰(trust), 규범(norm), 네트워크(network)로 이루어진 공공재적인 사회속성'(Coleman, 1990)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구성개념이 다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결사체참여)와 신뢰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네트워크는 개인 수준의 네트워크와 결사체의 참여 수준의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설정하였다(참조 김태룡, 2006: 36). 네트워크는 지방행정공무원이 참여한 지방행정조직내·외의 결사체 참여로 한정하였다. 신뢰는 Yamagishi와 Yamagishi(1994)의 특정신뢰와 일반신뢰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일반신뢰는 다시 제도신뢰와 대인신뢰로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였다[1].

본연구의 분석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9급부터 5급까지의 본 청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분석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에 대한 관찰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중에서 어느 수준에서 더욱더 연고주의가 확연히 드러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지역주의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출신이 근무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역주의는 중앙정부에서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측정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에서는 제외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하나(원숙연, 2001:8),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엄연히 본 지역 출신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으며, 학연과 연계하여 연고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면접을 통해 얻은 결과는 지역 지리나 지역적 속성에 익숙한 경우의 공무원이 민원해결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분석대상으로 설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공무원의 연고주의적 태도와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신뢰수준 과 부패 용인도를 측정하고자 적합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첫째, 성장배경이 이들 개념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하여 대도시의 성장배경과 농촌을 성장배경으로 한 분석대상을 추출하는 것과 둘째는 광역시·도와 군청 근무자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관점에서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래서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본청 근무자로 한정하고 대도시 성장배경을 가진 자와 농촌 성장배경을 가진 자를 평준하게 추출되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주된 방법은 설문지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연고주의적 태도가 네트워크 활동과 신뢰수준 그리고 부패 용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지법에 보완적 수단으로 오랜 공직경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면접방법을 병행하였다. 특히 지방행정공무원과의 면접은 측정도구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서구에서 고안되고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도 있어서 공직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가 더러 있었다.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예비조사 설문지에 대해 상당한 조언을 구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현실성있는 설명을 접할 수 있었다.

---

1) Yamagishi & Yamagishi(1994)는 일반신뢰와 정보 의존적 신뢰(information-based trust)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신뢰는 아무 정보가 없을 때 타인 일반에 대한 신뢰로, 상대의 신뢰성(trustworthy)의 정도를 시사하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는 정보의존신뢰로 구분하였다. 일반신뢰와 특정신뢰의 구분은 더 거슬러 올라갈수도 있지만 Yamagishi & Yamagishi(1994)에서 처음 구분된 것 같다.

Ⅱ. 사회자본과 부패 : 분석요인

1. 좋은 사회자본과 나쁜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의 시각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나 크게 두 가지 분석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유석춘 외, 2003 cf). 하나는 지역사회의 사회집단이나 가족과 같은 대면사회(face to face community)속에서 사회자본의 역량이나 기능을 연구하는 미시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구성원이 공식·비공식 사회조직에 참여하는 정도와 사회발전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미시적인 관점은 Portes(1998), Lin(1999)과 같은 학자들이며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거시적 관점은 Putnam(1993; 2000), 퍼트남(1993), Fukuyama (1995), Evans(1995)같은 학자들로 대규모 사회조사결과를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사실 사회자본은 사회적 해악(social bads)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회자본연구들은 사회적 유익(social goods)에 초점을 맞춰왔다(Warren. 2004 : 1). 좋은 사회자본은 민주주의, 교육, 번영, 안정, 보건, 행복 등을 촉진하지만, 나쁜 사회자본은 테러, 조직범죄, 후견주의, 경제 비능률성, 혁신의 지연 등과 함께 부패 및 불평등문제를 수반하기도 한다(Warren, 2004). Portes(1998)는 사회자본은 공공재(public goods)로서 기능하기도 하지만 부의 공공재(public bads)를 발생한다고(Portes, 1998:18) 하여 좋은 자본(good capital)과 나쁜 자본(bad capital)의 구별 논쟁을 가열시켰다. Warren(2001)은 공공재(public goods)는 민주주의에 좋은 사회자본이고, 부의 공공재(public bads)는 민주주의에 나쁜 사회자본으로 등식해 놓고, 연결사회자본은 좋은 사회자본이고 결속사회자본은 나쁜 사회자본으로 구분하는데 주저 하지 않았다. 또한 부의 공공재는 부패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utnam(2000:23)은 “그럭저럭 살기(getting by)”와 “잘 나가기(getting ahead)″로 재미있게 구별하였다. 즉, 결속사회자본은 닫힌 네트워크에서 신뢰와 호혜성을 기반으로 매일 매일의 삶으로 그럭저럭 해쳐나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정도지만,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연결사회본을 통해서만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사회자본으로서의 연고주의

연줄을 ‘연고주의에 기초한 인간관계의 끈 또는 유대’(김현주, 1995:195)라고 한다면 이런 연줄에 연연하고 때론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줄에 의존할까?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고주의에 기초한 연줄집단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의 가족이나 친족의 강한 연결망 결속으로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가족이나 친족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은 그 경계 내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에게는 이익이 된다. 하지만 이 범위를 사회전체로 봤을 때는 사회에 해로운 집단이 될 수 있다.

연줄집단(혹은 귀속적 집단)의 소속원이나 그 집단 내부의 소속원간에는 호혜적 신뢰가 형성되어 상호이익이 있어 합리적 선택행위 일 수 있지만, 사회전체로 환원하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다(한승완 2007:98; 김용학 2004:119-120).

첫째는 귀속적 집단은 구조적 부패를 낳으며 이는 사회적 비효율성과 도덕적 위기를 가져온다. 국가의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고 친족이나 친분에 기초한 특정신뢰(particularized trust)[2)]가 창궐하게 되고 이들 간의 부패가 확산될 수도 있다. 이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호혜적 신뢰와 일반화된 교환의 형태가 충만할 것이다. 신뢰할 만한 외부인의 진입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은 그 외부인을 불신할 것이고, 그 구성원들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지도 모른다. 이처럼 특정신뢰에 기초한 거래는 잘 모르는 사람간의 거래보다 폭로와 배신의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로즈-액커만, 1999:153).

둘째, 연줄의 폐쇄적 특성은 경쟁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연고 집단의 존재는 외부의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원에 대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유석춘 외, 2000:98). 귀속적 집단내의 호혜적 신뢰가 외부인의 진입을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집단외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혹인 일반신뢰가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 특히 핵심적 연줄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공평성에 대한 요구를 할 것이다(김용학, 2004).

셋째, 닫힌 연결망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폐쇄적인 연줄망은 내부적으로 거래비용을 줄이지만 동시에 더 큰 단위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김용학, 2004). Fukuyama(2001:12-16)은 중국이나 중남부 이탈리아와 같이 강력한 가족주의 사회는 가족이외에 대한 일반사회신뢰(general social trust)가 존재하지 않으며 안으로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해주는 명목은 있으나, 밖으로는 외부인에 대한 폭력, 불신, 불관용, 증오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신뢰의 반경(radius of trust)이란 용어를 빌어서 반경이내에는 긍정적 효과가 반경이외는 부정적 효과가 창출된다고 한다.

넷째, 연줄 내에서만 존재하는 신뢰는 경제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예를 들어 IMF 구제금융의 원인을 연고 집단내의 거래 혹은 집단간의 내집단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

2) Rose-Ackerman(2001a)은 이를 애정기반신뢰(affect-based-trust)이라고 불렀다.

거나 후쿠야마(1995)가 한국 재벌기업을 혹독하게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경우는 정부공직자간 혹은 공직자와 부패한 기업인간의 일종의 내부거래(self-dealing)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Rose-Ackerman, 2001). 외부인(outsider)이나 외집단(out-group)에 대한 적대감, 불신, 배타성을 지닌 귀속적 집단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의 밖에 존재하게 되고 부패발생의 소지가 열린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연줄집단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손상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은 귀속적 집단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한다(한승완, 2007: 99). Putnam의 낙관적 기대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들은 민주주의 성취에 결정적인 원인을 한다. 특히 친분과 관련이 있는 '결속 사회자본'과 '강한 연결'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연줄집단의 외부집단에 대한 배타성으로 말미암아 파당성과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여 전체사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붕당주의적 사회특성을 지속 시킬 수도 있고, 결국 민주주의 공고화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장수찬, 2004: 360).

3. 신뢰와 부패

부패와 신뢰는 양극단처럼 보인다(Uslaner, 2005a). 부패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신뢰는 어떤 사람이나 제도가 기대한데로 될 것이라는 믿음직함(Rose-Ackerman, 2001a)을 의미한다. 부패가 이기적 행위의 표현이라면 신뢰는 이기적 행위를 극복하게 해준다.

역설적이게도 뇌물을 주고받는 뇌물거래자간에는 이미 신뢰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즉 뇌물을 주는 사람과 뇌물을 받는 사람간의 호혜적 이익이 공범자간 신뢰(trust among the conspirators)를 형성하게 된다(Uslaner, 2005). 부패행위는 거래 당사자간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다. 신뢰는 협동행위의 기본전제가 되는데 부패행위도 당사자간의 협동행위라는 의미도 된다. 가령, 상대방이 뇌물거래에 대하여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뢰(trust)는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윤활유(야마기시, 1998:74)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뢰는 협동을 전제로 하고 부패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라면 신뢰는 신뢰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할 수도 있다. Fukuyama (2001)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마피아의 반경 내에 존재하는 신뢰와 반경이외에 존재하는 신뢰의 두 유형이 존재함을 알린 것이다. 이탈리아 남부 주민들은 정부와 제도의 공정한 처리나 법적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스스로 대안을 찾

아서 또 다른 신뢰유형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특정신뢰는 더욱더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신뢰를 정직함으로 특정신뢰는 부패를 이끄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Yamagishi 와 Yamagishi(1994)의 신뢰 분류를 빌어서 특정신뢰와 일반신뢰로 구분한다. 즉 일반신뢰는 사람에 대한 신뢰, 사법제도(경찰, 검찰)에 대한 신뢰, 국가제도(정부, 의회, 정당,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익명의 경제 행위자간의 신뢰이다. 특정신뢰는 가족, 친구, 친족에 대한 신뢰, 기업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이른바 '정직한 수회자(honest bribee)'에 대한 신뢰이다(Tonoyan, 2004).

3. 가설 설정

1) 연고주의와 네트워크 참여

연고주의는 혈연, 학연, 지연의 특수한 관계 혹은 전근대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연고주의 태도 혹은 성향은 혈연 혹은 친분에 의한 특정신뢰를 형성하기도 한다. 한편, 네트워크를 귀속적 네트워크와 비귀속적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3]. 귀속적 네트워크는 연고집단 혹은 연줄망으로 결속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을 의미하고 비귀속적 집단은 연결망으로 연결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의미한다고 앞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고주의적 태도가 강할수록 연고주의적 행위를 즉, 귀속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혈연,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귀속적 네트워크의 행위는 각각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등의 연줄망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대로 혈연, 학연, 지연을 통한 태도가 낮은 수준에서는 비귀속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최석만(1989)의 연구에 따르면, 연고주의적 태도와 연고주의적 행위 간에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조사된바 있다. 연고주의적 태도는 연고주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귀속적 네트워크로부터 얻은 도움이나 도움에 대한 기대감이 태도와 행위를 이끈다는 것이다(최석만, 1989:105). 반면, 폐쇄적이며 귀속적인 가족 연줄

---

3) 이런 구분은 김우식(2006:32)이 말한바와 같이, Parsons가 제시한 귀속성(ascription)과 관계를 연상한 것으로 개인적 속성에 대한 판단이 그 행위자의 귀속적 상태나 지위에 근거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퍼트남(1994)은 수평적 네트워크와 수직적 네트워크로, 김우식(2002; 2006)은 귀속적 연결망과 비귀속적 연결망으로, 장수찬(2004)은 풀뿌리연줄조직, 일반사회조직, 사회운동조직으로, 박병진(2007)은 연고집단, 이해단체, 취미단체, 청탁(접촉)으로, 박희봉(2003)은 수직적 단체, 수평적 단체로, 김선미(2004)는 풀뿌리단체, 사회운동단체로 결사체로, 이재혁(2005)은 일차집단과 이차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귀속적 네트워크=연줄망=연고집단=귀속집단과 같거나 유사하여 필요에 따라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결사체 참여율이 떨어지고, 특히, 취미, 자선, 봉사 모임과 같은 비연고적 단체 참여율이 낮은 것이 밝혀졌다(이재열, 1998:199). 따라서 연고주의적 성향이나 연고자에 대한 특혜의향이 있는 경우는 귀속적 네트워크에 참여의 강도가 커질 것이고 반면에 연고주의적 태도가 낮은 수준에서는 비귀속적 네트워크에 참여의 강도가 더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연고주의적 태도가 강한 공무원일수록 귀속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2: 연고주의적 태도가 약한 공무원일수록 비귀속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2) 네트워크 참여와 일반신뢰

앞에서 여러 차례 소개된 이탈리아에 대한 두 연구 즉, Gambetta(1993)와 퍼트남(1993)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친족이나 친분에 기초한 귀속적 네트워크에 의한 특정신뢰가 창궐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귀속적 네트워크의 참여의 강도가 강할수록 국가제도, 정부, 공적제도, 그리고 대인신뢰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Rosthein 과 Stolle(2001)에 따르면, 질서유제도(경찰, 사법부)와 일반신뢰간의 관계조사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귀속적 네트워크의 참여는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를 침식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비귀속적 네트워크의 참여는 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적 시민성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Diamond, 1994). 이와 같이 비귀속적 네트워크의 참여는 대인간 기술(interpersonal skills)을 익혀서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용(tolerance)을 촉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토크빌식 결사체 참여 모형을 근거로 해서, 결사체의 참여는 정치문화와 정치적 발전 연구의 오랜 연구주제였으며, 격동적인 시민사회의 이익적 측면을 강조해왔다(Almond & Verba, 1963; 퍼트남, 1993; Warren, 2001).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어떤 형태든 결사체 참여가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이글에서는 귀속적, 비귀속적 네트워크로 구분한다는 것을 다시 밝혀두고자 한다. 국내연구에서, 이재혁(2006:85)은 1차 조직(향우회와 동창회)과 2차 조직으로 구분하여 제도신뢰와 사회신뢰를 조사한 결과 일차조직의 참여도와 신뢰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단지 2차 조직에서 제도신뢰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유재원(2000)의 조사에서 결사체 참여가 일반신뢰(정부신뢰, 사회신뢰)

를 창출하지 않지만, 참여의 강도(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에서 즉, 소극적 참여가 사회적 신뢰와 미약하지만 정(+)의 관계임을 밝혀냈다[4].

이와 같이 경험적·실증적 결과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귀속적 네트워크의 참여행위는 일반신뢰를 침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귀속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강도가 강한 공무원일수록 일반신뢰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반면에 비귀속적 네트워크의 참여의 수준은 일반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 귀속적 네트워크 참여의 강도가 강할수록 특정신뢰가 높다.

가설4 : 비귀속적 네트워크 참여의 강도가 강할수록 일반신뢰가 높다.

3) 일반신뢰와 부패에 대한 가설.

일반신뢰의 변화는 부패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Uslaner, 2005; You, 2005). 물론 부패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반신뢰가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Rothstein & Eek, 2006). 부패한 사회에서는 일반시민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장치들을 고안해 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앞에서 특정신뢰라고 불렀다. 일반적으로 부패에 대한 경험은 보통사람에 대한 불신, 증오, 비관, 냉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Rothstein & Eek, 2006), 대인, 제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부패간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신뢰를 침식시킨다는 명제는 잘 알려져 있다. 뇌물에 대하여 묵인하는 부패한 사회에서는 일반신뢰의 창출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Rosthstein & Uslaner, 2005 : 김왕식, 2007).

김왕식(2007)은 국내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종합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신뢰, 대인신뢰, 정치제도신뢰(대법원, 정부)를 독립변수로 놓고 부패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정부공무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부패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신뢰가 낮아진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신뢰,

---

4) 유재원(2000)은 적극적 참여(정기적 참여)보다 오히려 소극적 참여(비정기적 단체참여)가 사회신뢰에 미약하나마 정(+)적 관계를 미치는 결과를 보고, 기존의 사회자본이론과 배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결과는 퍼트남의 결과나 Stolle(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먼저 정리할 것은 유재원이 조사한 사회신뢰(사람들은 대부분은 믿을 만하다, 세상사는 데 조심하지 않으면 남에게 이용당한다)는 본 연구에서는 대인신뢰로 본다는 점이다. Stolle(1998)의 연구에서 5년 이상 결사체에 참여한 구성원은 오히려 대인신뢰가 감소했으며 참여경력이 1년 이하인 경우는 대인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결사체 체류기간이 높은 경우는 특성신뢰가 창출되고, 체류기간이 낮은 경우는 일반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Stolle(1998)은 이것을 대인신뢰의 내집단신뢰 효과(intragroup trust)라고 했다.

사법제도(법원, 경찰, 검찰)에 대한 신뢰,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정당에 대한 신뢰수준가 낮다고 인식하는 공무원일수록 부패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이런 공무원일수록 특정신뢰(가족, 동창생)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 :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부패용인도가 낮아진다.
가설4 : 특정신뢰가 높을수록 부패용인도가 높아진다.

4) 연고주의적 태도와 일반신뢰에 대한 가설

연고주의적 태도는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해서 연결되는 사람들끼리 상호간에 보이는 내집단 편향적 태도(한규석, 1998:88-89)라고 정의해 두자. 앞에서 연고주의는 가족이나 친분관계에서 형성되는 특정신뢰를 형성한다고 했다. 연고주의의 속성은 타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폐쇄성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다. 즉, 연고집단내에 대한 특정신뢰는 타인에 대한 이타주의적 행동과 같은 더 넓은 사회로 전이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는 속성이 있다. 이런 연고주의적 속성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다(송호곤, 2003). 동문이나 동향, 친족은 조건 없이 믿을 만하다는 동류의식은 타집단을 배제하는 메커니즘이 된다(송호근, 2003:114). 퍼트남(1993)의 주장처럼, 이탈리아 남부의 내집단에 대한 높은 특정신뢰가 더 넓은 사회에서 낮은 수준의 일반신뢰를 창출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연고주의적 태도 혹은 성향이 강할수록 낮은 일반신뢰를 창출하고 반면에 약할수록 높은 일반신뢰수준을 이끌 것이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4 : 연고주의 태도가 강할수록 특정신뢰가 높아진다.
가설5 : 연고주의 태도가 약할수록 일반신뢰가 높아진다.

5) 연고주의적 성향과 부패에 대한 가설.

한 국가의 근원적인 부패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사회적 풍토 내지 문화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전수일, 1999:35). 특히 우리나라의 부패의 특성은 연고주의에 의해 관습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은 흔한 말이다. 이와 같이 연고집단의 속성이 가지는 배타성과 폐쇄성이 연고 소속원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전체의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닫힌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한다.

연고주의에 의해서 뿌리박혀 있는 이런 구조적 사회문화적 환경은 부패의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 즉, 공정경쟁 및 사회적 신뢰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효율

성제고를 가로 막아 정직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고자 특혜 문화이다(김태영 외, 2006:97).

이와 같이 가족에 대한 애착과 연고자에 대한 특혜의향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지배하면서 부패의 소지를 남기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김우식(2006)은 전국 1435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질서조사를 활용하여 뇌물증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동창특혜가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친척특혜와 동향특혜는 무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조사된바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 연고주의성향이 강할수록 부패용인도가 높아진다.

6) 네트워크 참여와 부패에 대한 가설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사회자본을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상호신뢰와 호혜성의 과정을 거쳐서 시민사회로 발전한다. 시민규범과 네트워크 참여는 부패와 연고주의 없이 작동하는 정부를 신뢰하도록 시민을 교육하게 된다. 수평적으로 조직된 결사체는 사회자본을 증진하지만, 수직적으로 조직된 결사체는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동등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행위자를 결집한 수평적 네트워크는 일반호혜성과 신뢰, 집단문제해결 등에 유리한 반면, 동등하지 않은 행위자들의 위계질서와 비대칭적 관계로 연결한 수직적 네트워크는 특정호혜성과 특정신뢰를 발생시키고 좋은 정부와 부정적 연관성을 가지고 부패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퍼트남, 1993). 즉 결사체 회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성숙도와 사회신뢰, 정치참여 및 시민의식이 높다(퍼트남, 1993)고 하였는데, 어느 형태의 결사체 참여든지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Stolle(1998)는 퍼트남의 논점에 기초하여 조사하였는데, 결사체 가입은 신뢰를 증폭시키지만 장기간 체류한 경우에는 오히려 신뢰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처럼 결사체 구성원간 강력한 결속을 가진 구성원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일반신뢰가 창출되지 않고, 반면에 느슨한 결속을 할 때 결사체 외부에 대한 신뢰가 증진된다는 것이다. 즉 바꾸어 말하면, 친족이나 친분을 기초하는 특정신뢰인 귀속적 네트워크 보다는 익명인과의 교류를 기초로 한 비귀속적 네트워크 가 더욱더 좋은 자본을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della Porta(2000)는 부패에 대한 인식은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자본을 대표하는 혹은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앞에서 밝혔다. 특히 부패는 그 은밀성과 비공식성의 속성에 의해 부패참여자간의 끈끈한 특정호혜성과 특정신뢰에 의해 귀속적 네트워크와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활동을 통한 귀속적 네트워크 행위를 활발히 하는 사람일수록 특정신뢰와 특정 호혜성을 창출하고 부패행위

에 가담하기 쉽고 뇌물수수행위 등에 쉽게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김우식, 2002). 반면에 비귀속적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일수록 일반신뢰가 창출되어 부패행위에 가담을 꺼리게 될 것이다. 부패거래의 고유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귀속적 네트워크의 참여는 은밀성의 보장과 배신의 위험을 감소시켜준다고 믿을 것이다. Baker 와 Faulkner(1993)의 관찰처럼, 불법행위는 은밀성과 비공식성 그리고 기밀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특정신뢰와 특정 호혜성을 생성하는 귀속적 네트워크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고적 행위 자체가 도구적 행위이며 일반교환(이자적 교환이 아닌)의 속성에 의하여 연고자후원행위에 쉽게 동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우식(2002)은 귀속적 연결망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행위자일수록 뇌물수수에 대한 친화력이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국내성인 1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정(+)의 관계로 가설이 지지 되었으며, 비귀속적 단체 활동인 정치적 활동은 뇌물수수변수와는 무의미하였지만 사회적 활동은 부(-)적 영향을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김우식(2006)은 또 다른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귀속적 연결망(동창회, 향우회, 종친회)과 뇌물증여는 무의미했지만, 정치단체활동은 정(+)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이와 같은 논거에 의하여 귀속적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는 사람일수록 부패요인도가 높고 비귀속적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는 사람일수록 부패용인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6: 비귀속적 네트워크에 활동하는 강도가 높은 공직자보다 귀속적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공무원이 부패용인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Ⅲ. 조사 설계

1. 측정도구

1) 연고주의

연고주의는 세 가지 구성요소 즉, 혈연, 학연, 지연이라는 전통적 사회관계의 복합적인 그물망이라고 했다(이훈구, 2003: 20). 연고주의 태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로 분리하였는데, 지연, 학연, 혈연이다. 먼저, 지연에 대한 지역주의 측정도구이다. 지역주의는 '지연을 근거로 한 지역 분파적, 지역 중심적 태도로 감정, 인지, 행동적 차원으로 구성'(원숙연, 2001:127)된다. 여기서도 원숙연(2001)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원숙연(2001)은 지역주의 태도 측정을 위한 9문항을 구성했다.

둘째, 혈연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족주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박통희(2004a)는 가

족주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문항 중에 도구적 기능을 구성하는 2문항과 가족이기주의를 구성하는 3문항을 도입하였다. 또한 김형옥(2002)이 사용한 10개의 문항 중 연구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문항, 즉 가족집단중심주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셋째, 학연은 동문에 대한 특혜의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7문항을 개발하였다. 학연은 학벌을 중요시하는 태도인 학벌주의와 다르다. 그러나 학연을 중시하는 태도나 학연자의 후원행위에는 학벌주의의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여하튼 지역명문고를 중심으로 이어진 학연은 학벌주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5]. 지역의 동문회를 중심으로 하는 내집단 편애를 중심으로 하는 후원행위, 인사상 특혜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학연 태도 혹은 성향은 지역주의 태도를 묻는 문항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2) 연결망

사회자본이론의 개념적 혼란에 비해서 사회자본의 측정은 의외로 간단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 가입의 유무와 참여활동의 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직 내・외적 단체참여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장 밖의 모임과 직장 내의 모임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온라인상의 모임도 포함시켰다. 직장 밖의 모임은 14단체를 설정했으며, 직장안의 모임은 10개로 설정했다. 한편 귀속적 네트워크와 비귀속적 네트워크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일단 향우회, 동문회, 종친회는 내・외를 불문하고 귀속적 네트워크 참여로 표현하였다. 일부연구에서는 친목모임이 귀속적 행위로 표현되고 있으나 일단 본 연구에서는 비귀속적인 것으로 보고자한다. 이들 단체에의 참여 정도를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1점), '회원만가입하였다.'(2점), '모임에 가끔 참여한다.'(3점), '모임에 자주 참여 한다.'(4점), '모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5점)의 척도로 구성했다.

3) 신뢰

일반신뢰는 익명의 타인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신뢰이고 특정

---

5) 지방행정조직에서는 명문대학의 출신자들은 거의 없고 지역대학이나 지역고등학교 출신자들이 대부분인 점을 볼 때, 학벌중심태도보다는 학연의 도구적 동원 능력이 좋은 다수의 공직진출자를 배출한 지방명문고 중심의 학연이 형성되는 것 같다. 가령 한 지역의 명문고였던 실업계고등학교출신의 공직자들의 수가 줄어 추락하고 신흥인문계고등학교 출신자들이 공직자로 다수 진출하는 경우에 그 지역사회의 주류 학연이 변화 형성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학연(특히, 고교)의 위력은 한 지역 동문의 수와 '동원력'에 달려있는 것 같다. 지방정치인, 공무원, 상공업자간의 동문네트워크의 동원력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데 주된 메카니즘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할 때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같은 동문끼리 출마해서 경쟁하게 되면 어떤 후보를 밀어주자고 결의한다든지, 다른 고교와 경쟁할 때 고교간 경쟁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신뢰는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동료집단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 일반신뢰(generalized trust)와 대인신뢰(익명의 사람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돈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여기서는 Yamagishi 와 Yamagishi(1994)가 개발하고 야마기시(1998), 조기숙 외(2004)가 사용한 6문항 중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 한다'의 문항[6]을 제외한 5문항을 사용하여, '다음 질문에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절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물었다.

둘째, 정부신뢰는 '정부가 생산하는 각종의 산출물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가 국민들의 정상적인 기대에 부응하여 어떻게 잘 운용되고 있는가에 기초한 정부에 대한 기본적 평가'(오경민・박홍식, 2002:115)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 개념구성요소로 사용된 3문항과 다차원 구성적 요소에서 정직성으로 수렴된 3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에 대한 권위 상실에 대한 질문과 '정부정책 때문에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부에 이용만 당한다.'를 추가하고 '1. 절대 아니다'에서 '5.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단일차원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1. 전혀 믿을 수 없다'에서 '2. 매우 믿을 수 있다'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제도신뢰는 '국가제도 혹은 사적부문의 제도에 대한 신뢰'이다. 공적 제도의 신뢰는 사회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된다고 믿을 때 생성되는 것이다(김지희, 2002:245). 제도신뢰가 낮은 상황에서는 특정신뢰가 창궐하고 나쁜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은 기관 또는 단체 모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임께서 신뢰하는 정도를 '1. 전혀 믿지 않는다', '비교적 믿을 수 없다', '그저 그렇다', '비교적 믿을 수 있다', '매우 믿을 수 있다'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측정하였다. 목록은 공공부문제도(법원, 중앙정부, 국회, 경찰, 지방자치단체, 검찰)와 사적부문제도(언론, 노조, 시민단체)로 9개 범주를 설정하였다.

넷째, 특정신뢰는 '일대일 대면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신뢰'로 정보기반신뢰(Yamagishi 와 Yamagishi, 1994, 야마기시, 1998)와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즉, 가족, 친분 있는 사람, 직장동료들 끼리 혹은 소속된 집단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친구', '고등학교 동문', '동료공무원', '내부감사기관'을 설정하고 '전혀 믿을

6) 조기숙・박혜윤(2004)에서 이 문항은 요인적재량이 다른 5개의 문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490) 공통성(.305)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p.110).

수 없다(1)'에서 '매우 믿을 수 있다(5)'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 부패

부패는 그 속성에 의해 측정 자체가 한계가 있다(Seligson, 2005). 여기서 부패 수용도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한다. 다양한 부패 행위유형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정도를 측정하여 부패 수준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지은 외(1997)의 9개 문항 중 6개 문항과 Menzel(1995)의 윤리적 풍토 척도(ethical climate scale)중 1개 문항(우리 부서 사람들은 정부(지방)의 친구나 친척의 고용에 영향력 행사를 위하여 그들의 지위를 남용한다)라는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Menzel(1995)의 척도를 수정해서 사용한 김호정(1999b)의 항목 중 '승진에 능력보다 개인적 유대 중요' 문항을 실정에 맞도록 사용하였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2006)에서 사용한 문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연고자의 후원행위에 관한 질문, 부당한 업무지시, 습득한 정보의 이용의 문항, 예산의 부정사용을 설정하였으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1)'에서 '매우 허용할 수 있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조사 개요

질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상당한 경력의 공무원과 상의하여 문항의 안면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 약 7일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으며 회수되어 분석된 것은 166매이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본 조사에 사용될 문항을 선정했다. 본 조사는 2008년 4월1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9일이 소요됐으며, 지방공무원의 성장 배경과 업무형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이 평준하게 선정되도록 광역시·도청, 시청, 군청에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응답지는 불성실응답자를 제외한 26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Ⅳ. 결과분석 및 논의

1. 가설검증

1) 연고주의적 태도가 네트워크 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력

연고주의적 태도가 네트워크 참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연고주의 태도가 강한 공무원일수록 귀속적 네트워크 행동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고, 연고주의성향이 낮은 공무원은 비귀속적 네트워크 행위를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 되지 않았다.

<표 1> 연고주의 태도와 네트워크 참여의 단순선형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귀속적 네트워크		비귀속적 네트워크	
연고주의적 태도	β	t	β	t
	.226	3.691***	.104	1.662
R^2/F-value	.051/13.625***		.011/2.762	

* 주) *** p<0.001

이와 같은 결과는 이재열(1998)이 지적한 연줄에 의한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은 결사체 참여율이 떨어지고 비귀속적 네트워크의 참여율이 낮아진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견해이다. 한편 이원적 네트워크 구조의 유형 분류가 가능함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다만, 취미 및 레저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귀속성을 가지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대체로 취미나 레저도 친목의 성격이 강하고 비슷한 연령이나 학연에 의해서 조직된 모임의 성격이 짙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연고자 일체감이 이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귀속적 네트워크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행위가 지역연고와 학교출신간의 강한 내집단특성과 일체감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네트워크 참여와 신뢰에 대한 가설 검증과 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의 참여 정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인신뢰에 대한 영향력(p<.01)과 법집행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력(p<0.01)만이 설명력(R^2)이 유의미하였다. 대인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일하게 사회참여단체의 참여 정도이었고(p<0.01),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즉, 사회단체 참여 정도가 강할수록 대인신뢰가 낮아 졌다. 제도신뢰 중 법집행제도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사회참여단체였다(p<0.001). 즉, 사회단체참여 정도가 강할수록 법집행제도신뢰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귀속적 네트워크 참여 정도가 강한 공무원일수록 특정신뢰가 높고, 비귀속적 네트워크 참여정도가 강한 공무원일수록 일반신뢰가 높다는 가설은 지지받지 못했다. 첫째, 익명에 사람에 대한 신뢰인 대인신

뢰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참여단체(노조활동, 시민단체참여) 변수로 음(-)의 영향을 행사하였다.

<표 2> 네트워크 참여와 신뢰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종속변수 / 독립변수	일반신뢰								특정신뢰	
	대인신뢰		정부신뢰		제도신뢰					
					법집행제도		감시견제			
	β	t	β	t	β	t	β	t	β	t
연고단체	.050	.664	.008	.098	.042	.545	-.110	-1.399	.061	.787
취미단체	.032	.442	.041	.551	.068	.930	-.009	-.123	.117	1.563
지역공동체단체	-.041	-.489	.187	2.158*	.196	2.411	.073	.831	.089	1.077
정보・종교단체	-.078	-1.004	-.096	-1.206	.011	.148	.007	.082	-.105	-1.366
사회참여단체	-.224	-3.000**	-.082	-1.076	-.275	-3.780***	.017	.218	-.174	-2.350*
R^2	.069		.024		.071		.010		.040	
F-value	3.793**		1.235		3.723**		.496		2.006	

주) * $p<0.05$, ** $p<0.01$

한편 비귀속적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관계기술(relational skills)을 익혀서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용을 촉진한다는 토크빌식 결사체 참여 모형의 주장들(Almond & Verba, 1963; 퍼트남, 1993; Warren, 2001)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공무원들이 대인신뢰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실, 이런 결과는 상당히 당혹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직장내의 노동활동모임에 가입한 공무원을 선택하여 위 모델을 검증한 결과 오히려 '회원가입' 이상에서 오히려 더욱 대인신뢰에 대한 모델(R^2=.156, β=-473)이 안정되었다. 사회참여단체가 갖는 오랜 주변화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공무원조동조합이 합법화되기 까지 오랜 시간동안 주변화 경험과 기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감, 소외와 불신이 낮은 대인신뢰와 낮은 제도 신뢰(특히, 법집행제도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7].

둘째, 법집행제도신뢰에 대한 영향력은 사회참여단체가 유일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사회참여단체에의 참여 정도가 강할수록 법집행제도에 대한 신뢰를 침식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셋째, 특정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귀속적 네트워크나 비귀속

7)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을 비귀속적 네트워크로 분류하였으나 분석한 결과에서는 귀속성을 보이고 있었다. Zmerli(2003)의 연구에서는 결속사회자본으로 분류된 바 있다.

적 네트워크 모두에서 영향력이 무의미하게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공무원의 경우는 내·외집단의 엄격히 구분하여 신뢰 성향을 보이며, 비귀속적 네트워크의 성향이 결사체에도 여전히 연고적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전체적으로 볼 때, 귀속적 네트워크 행위는 일반신뢰와 특정신뢰에 아무런 영향력을 보이지 않지만 비귀속적 네트워크 행위에서 오히려 일반신뢰와 특정신뢰 모두에서 상당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3) 신뢰와 부패에 대한 가설 검증과 논의

부패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기 위하여 신뢰를 독립변수로 부패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는 <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신뢰의 부패 용인도에 대한 영향력은 발견하지 못했다.

<표 3> 신뢰에 대한 부패용인도의 영향력 검증

	직무일탈행위		부당지시		온정주의적 태도	
	β	t	β	t	β	t
대인신뢰	-.017	-.231	.050	.669	.006	.082
정부신뢰	.091	1.176	.060	.766	.021	.271
감시·견제제도신뢰	.031	.412	-.104	-1.362	-.036	-.469
법집행제도신뢰	.081	.949	.050	.581	.135	1.563
특정신뢰	-.250	-2.742**	-.088	-.958	.042	.457
R^2	0.39		.017		.026	
F-value	1.933		.848		1.275	

주) **p<0.01

지방행정공무원의 경우, 특정신뢰가 높아질수록 직무일탈행위에 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결과는 제도에 대한 불신이 특정신뢰 낳고, 일반신뢰가 높으면 특정신뢰가 낮아지고 특정신뢰가 높아지면 일반신뢰가 낮아진다는 것과 일반신뢰가 낮아진 곳에서 특정신뢰가 창궐하여 이를 대체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연고주의적 태도와 신뢰에 대한 가설검증과 논의

연고주의를 독립변수로 신뢰는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여 신뢰에 대한 연고주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고자 후원행위가 증가할 수록 정부신뢰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이것은 연고주의와 신뢰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반응한 것이다. 연고주의와 신뢰의 영향력에서 얻은 것은 연고자 후원 의향은 정부신뢰를 침식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신뢰는 대체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못하는 변수(오경민・박홍식, 2002 참조)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연고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특정신뢰가 창출된다는 가설은 지지 받지 못했고, 또한 연고주의 성향이 약할 수 록 일반신뢰가 창출한다는 가설도 역시 지지 받지 못했다. 다만, 연고자 후원행위와 정부신뢰간의 음(-)의 영향력을 확인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신뢰는 연고자 후원행위가 강할수록 침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연고주의의 신뢰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종속변수 / 독립변수	일반신뢰								특정신뢰	
	대인신뢰		정부신뢰		제도신뢰					
					법집행제도		감시견제			
	β	t	β	t	β	t	β	t	β	t
연고자 일체감	-.011	-.118	.122	1.341	-.027	-.286	.094	1.017	.052	.551
연고자후원행위	-.014	-.154	-.241	-2.651**	.061	.638	-.114	-1.239	.067	.706
R^2	.001		.030		.002		.006		.012	
F-value	.063		3.903*		.241		.780		1.505	

주) * p<0.05, **p<0.01

5) 연고주의적 태도와 부패용인도에 대한 가설 검증과 논의

부패에 대한 연고주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고주의를 구성하는 두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부패를 구성하는 3요인을 종속변수 투입하여 각각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5)와 같다. 분산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직무일탈행위(R^2 .216), 부당지시행위(R^2 .132). 온정주의적 태도(R^2 .338)로 나타났다.

<표 5> 부패용인도와 연고주의적 태도의 상대적 영향력

	직무일탈행위		부당지시		온정주의적 태도	
	β	t	β	t	β	t
연고자 일체감	.603	7.352***	.381	4.430***	.582	7.754***
연고자후원행위	-.224	-2.729**	-.024	-.280	-.002	-.027
R^2	.216		.132		.338	
F-value	34.683***		19.251***		64.204***	

주) * p<0.05, **p<0.01, *** p<0.001

직무일탈행위에 대하여 연고자 일체감과 연고자 후원 행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고자 일체감은 양(+)의 영향력을, 연고자 후원행위 의향은 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부당지시행위는 연고자 일체감만이 유의미하였고 온정주의적 태도도 연고자 일체감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특히, 연고자 일체감과 연고자 후원행위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일탈행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화계수(β)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 6>은 연고주의 태도가 부패용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고주의 태도가 강한 공무원 일수록 부패 용인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 부패용인도와 연고주의 태도(단순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952	.150		6.350	.000
연고주의	.448	.051	.482	8.727	.000
R^2/F-value	.232/76.164***				

주1) *** p<0.001

주2) 연고주의태도 = (연고자 일체감+연고자후원행위)/2

먼저, 연고주의 성향이 강한 공무원일수록 부패용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 되었다. 이와 우리사회에 만연된 연고주의가 부패의 한 단면을 지배하는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김우식(2006)의 뇌물증여는 친척이나 동향 특혜의향은 무의미하게 그리고 동창특혜 의향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결과하고 어느 정도 일치한다. 즉, 연고자에 대한 특혜 혹은 연고자와의 일체감 형성이 부패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사회자본으로서의 연고주의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준다. 그래서 부패 유발 환경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연고주의 문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6) 네트워크 참여와 부패용인도에 대한 가설검증과 논의

<표 7>은 네트워크유형과 부패용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분산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직무일탈행위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공동체는 양(+)의 영향을, 연고단체는 음(-)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귀속적 네트워크의 행위를 활발히 하는 사람들은 부패에 더 익숙하고 비귀속적 네트워크 행위를 관계기술(relational skills)을 습득하여 부패와 거리가 멀 것이라는 주장들과 상반된 결과이다. 특히, 연고단체에 참여할수록 직무일탈행위가 낮아지는 것은 연고주의적 태도가 현저한 공무원은 귀속적 네트워크 행위할 가능성이 높으나 직무일탈행위에 대한 용인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한편, 봉사단체와 자선단체 그리고 입주자모임과 같은 지역공동체단체의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일탈행위에 대한 용인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지역공동체단체의 속성이 어떠냐 즉,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느냐 어떤 행위들을 하느냐 의사결정과정은 어떠냐에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부패행위를 배양하는 토양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 부패용인도와 네트워크 참여의 상대적 영향력

	직무일탈행위		부당지시		온정주의적 태도	
	β	t	β	t	β	t
연고단체	-.242	-3.178**	.079	1.010	-.066	-.856
취미단체	.107	1.471	-.079	-1.058	.107	1.453
지역공동체단체	.230	2.723**	.036	.413	.113	1.312
정보 및 종교단체	-.071	-.919	.039	.492	.061	.763
사회참여단체	.123	1.642	.007	.089	-.022	-.293
R^2	.073		.012		.034	
F-value	4.004**		.609		1.794	

주) * p<0.05, **p<0.01, *** p<0.001

2. 결과분석의 논의

본 연구는 지방행정조직에서 연고주의가 사회자본과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그 인과관계를 밝혀보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검증하고자 지방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고주의적 태도와 네트워크 행위, 신뢰, 부패의 상관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여 분석해봤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고주의적 태도가 강한 공무원일수록 귀속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H1-1)는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연고주의적 태도가 약한 공무원은 비귀속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지 받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한편으로는 공직사회에서 연고주의 태도에 대해 강한 현저성(saliency)을 가지며, 공직사회의 비공식적 사회규범이 귀속적 네트워크 행위로 압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8]. 다른 한편으로

는 연고주의적 태도가 낮다고 해서 비귀속적 네트워크 행위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째, 귀속적 네트워크 참여 강도가 높을수록 특정신뢰가 높다는 가설과 비귀속적 네트워크 참여 강도가 높을수록 일반신뢰가 높다는 가설도 지지받지 못했다.

셋째,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부패용인도가 낮아진다는 가설이나 특정신뢰가 창궐할수록 부패용인도가 높아진다는 가설은 지지받지 못했다. 오히려 지방행정조직에서 특정신뢰가 높을수록 직무일탈행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연고주의 태도가 강할수록 특정신뢰가 높아진다는 가설과 연고주의 태도가 약할수록 일반신뢰가 높아진다는 가설은 지지받지 못했다.

다섯째, 연고주의 태도가 강할수록 부패용인도가 높아진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여섯째, 비귀속적 네트워크에 활동하는 강도가 높은 공직자보다 귀속적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공무원이 부패용인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은 지지받지 못했다. 결국 지방행정조직의 공무원들은 귀속적 네트워크 행위이 하든 비귀속적 네트워크 행위를 하든지 부패 용인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방행정 공무원의 연고주의적 태도가 어떤 유형의 네트워크 활동을 유도하고 부패 행위에 연결되는지에 대한 것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사회자본으로서의 연고주의의 지방행정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신뢰향상과 부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고주의적 태도가 귀속적 네트워크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연고주의적 태도가 부패 용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론적으로 논의되어온 기존의 견해들과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고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첫째는 기존의 연고주의가 관료조직에서 나쁜 사회자본을 창출하고 관료부패의 부정적 요소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지방행정조직에서의 관행적인 인사정책이 문제, 근무평정제도의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 등에 정책적 함의가 있다.

둘째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비귀속적 네트워크 행위가 좋은 사회자본을 창출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논의하였다. 하지만, 지방행정조직에서는 오히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대인신뢰와 제도신뢰가 낮아지고, 또

8) 태도와 행위의 부합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기초는 한규석의 책(2000)을 참조할 것.

한 특정신뢰도 낮아지고 부패에 대한 용인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오랜 주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대인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특정신뢰로 전이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상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엄밀한 조사 설계와 측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연고주의와 네트워크의 실증적 분석과 연고주의와 부패용인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첫째, 지방직무원의 연고주의적 태도가 귀속적 네트워크 행위와 부패용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귀속적 네트워크행위와 부패용인도간의 영향을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 공직사회에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연고주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공직사회의 발전을 전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구조와 기능이 합리적·원칙적으로 변화해 나가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인사관리에서 인간관계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 제도가 정착되어야할 것이다. 이런 능력위주의 인사제도의 정착은 평가제도의 공정성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기준 및 절차가 전제조건이 된다.

둘째, 사회참여단체(시민단체+노조활동)의 구성원들의 낮은 대인신뢰와 낮은 정부신뢰와 높은 특정신뢰, 그리고 높은 수준의 부패 용인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참여단체가 낮은 대인신뢰는 높은 특정신뢰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노동운동이 최근에 합법화의 과정을 거쳤고,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좌절, 불만족, 소외, 상대적 박탈감 등의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높은 부패 용인도를 보이는 것은 부패행위를 구성하는 조건들이 좀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9].

정부의 반부패정책은 공무원의 행태적 처방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고 구조적·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온전히 완화할 수 있다. Uslaner(2005)의 지적처럼, 부패가담자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으로 신뢰를 회복해야만 관료부패를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신뢰의 변화가 역사성으로 인해 매우 느리게 진전됨으로 결코 단기적인 정책 처방으로 완화 할 수 없는 것이다.

---

9)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는 근본적으로 비판집단이다. 공공부문에서 직원들의 노조화 현상은 이제 광범위하게 정착되고 있다. 이처럼 비판집단이 공공부문에서 특히 행정조직에서 활성화면서 사부문과 같은 노·사간 협력과 신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이다. 공무원 조합원 입장에서는 노동자로서의 헌신과 공무원으로서의 헌신이 서로 갈등할 수도 있다. 또한 관리자입장에서도 권위와 권한의 위축으로 조합원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참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좋은 사회자본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악순환을 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민복지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연・혈연・학연 등 합리적・객관적 기준보다는 주어진 연고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 국가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국가청렴위원회, 2007:41)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부패행위를 완화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청렴위원회. (2007).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국가청렴위원회.

김왕식. (2007). 부패-신뢰 상관관계의 정책적 함의. 「제4차 한국종합사회조사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가족, 정부, 그리고 계층」.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 센터.

김용학. (2004). 「사회연결망이론」. 서울: 박영사.

김우식. (2002). 구조적 신호읽기: 연결망 구조와 규칙위반 행위의 조응방식. 「한국사회학」. 36(6).

김우식. (2006). 연결망, 불평등, 위법행동 : 비도덕성을 생성하는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40(5).

김우택・김지희. (2002). 신뢰의 개념과 신뢰연구의 맥락. 김우택・김지희 편.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 미시적 접근-」. 서울: 도서출판 소화.

김태룡. (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김태영・이환범・최원석・박근수・임병연・손배원・이수창・원준연. (2006). 한국의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0(2).

김현옥. (2002). 가족주의 의식의 구성과 변화: 한국사회에서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4(1).

김현주. (1995). 끈끈한 연줄의 나라, 한국. 임태섭 편(1995).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 한나래.

김호정. (1999). 행정풍토와 관료의 부패행태 : 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33(2).

로즈-액커만, 수잔. (1999).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장동진・이인표・정상화・진영재. (2000) 옮김. 「부패와 정부 -원인, 결과 그리고 개혁」. 서울: 동명사.

박병진. (2006). 신뢰와 세대 : 대인, 사회, 제도 신뢰에 있어 세대별 차이. 「세대, 일, 그리고 신뢰 : 국제비교」.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 센터 발표논문.

박병진. (2007). 신뢰 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박통희. (2004). 가족주의 개념의 분할과 경험적 검토 - 가족주의, 가족이기주의, 의사가족주의. 「가족과 문화」, 16(2).

박희봉・이희창・김동욱・김철수・박병래. (2003a). 한국인의 신뢰수준 및 영향요인 - 단체참여 및 개인의 사회・경제 배경과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 신뢰. 「한국정책학회보」, 12(3).

변지은・이수정・윤소연・김근영・손승영・오경자. (1997).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 중심적 경향이 관료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3(1).

Diamond, L. (1994). Rethinking Civil Society: Toward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5: 4-18.

Rothstein, Bo and Eek, Daniel. (2006), *Political Corruption and Social Trust - An Experimental Approach*, Conference Pap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06, Annual Meeting, Philadelphia Aug 30:. 1-44.

Rothstein, Bo and Stolle, Dietind. (2001), *Social Capital and Street-Level Bureaucracy :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ESF(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Conference 쉬apers, Social Capital :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in Exeter, United Kingdom, September.

Rothstein, Bo and Uslaner, Eric M. (2005), All For All :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 41-72.

Seligson, Mitchell A. (2005), The Measurement and Impact of Corruption Victimization : Survey Evidence from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34(2): 381-404.

Stolle, Dietlind. (1998), Bowling Together, Bowling Alone : The Development of Generalized Trust in Voluntary Association, *Political Psychology* 19(3): 497-525.

Tonoyan, Vartuhi. (2004),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Trust: Corruption and Entrepreneurship, in H.-H. Hömann and F. Welter(eds.) *Trust and Entrepreneurship: A West - East - Perspective*, Cheltenham: Edward Elgar.

Uslaner, Eric M. (2005). *Trust and Corruption*, Lambsdorf, Johann Graft, Taube, Markus, and Schramm, Matthias, (eds.),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of Corruption, New York : Routledge.

Warren, Mark E. (2001), Social Capital and Corruption, Social Capital :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EURESCO Conference Papers.

Warren, Mark E. (2004), What Does Corruption Mean in a Democr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2): 328-343.

Yamagishi, Toshio and Yamagishi, Midori.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

You, Jong-Sung. (2005), *A Comparative Study of Income In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Ph. D dissertation at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Zmerli, Sonja. (2003), Applying the Concepts of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to Empirical Research, *European Political Science* 2(3).

접수일(2009년 02월 24일)
수정일자(2009년 04월 06일)
게재확정일(2009년 05월 02일)